1700년 한국불교문화 디자인 날개를 달다

6회 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자 발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의 수상자 37명을 2월 12일 발표했다.

대상 중 전문가 부문에는 성외순의 '연화등잔' 이, 일반 부분에는 정기란의 '마음을 열다– 사천왕 페이퍼 토이' 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전문가 부분 수상자에는 1000만원이, 일반 부문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화등잔' 은 연꽃형태의 등잔에 불교적 감성이 잘 어우러진 공예작품으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으며, '마음을 열다– 사천왕 페이퍼 토이' 는 사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천왕을 페이퍼 토이로 제작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문화를 재미있게 재탄생시켰다는 데 큰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수상에는 연꽃을 테마로 한 '연봉매듭 브로치(이선주)' , 목탁 모티브의 자물쇠 '똑!똑!똑(이석진)' 이 각각수상했다.

또한 최현철의 단청무늬를 응용한 우산 '비오는 날의 풍경' 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200만원), 양정욱의 촛대꽂이 '기와 그리고 빛' 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00만원), 방상미의 다도용 보자기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는 한국디자인기업협회상(100만원)에 선정됐다.

불교 문화유산을 재조명한 다양한 상품 발굴과 내 ·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총 580개 작품이 접수돼 단일공모전으로는 최대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3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전문가부문) 수상작 성외순의 '연화등잔' <사진 위>과 대상(일반부문) 수상작 정기란의 '사천왕 페이퍼토이' .

수좌들 '不息寸陰' 원력 안고 세상속으로

쌍계총림 쌍계사 금당선원 동안거 해제 현장을 가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성조)는 진감 스님이 육조 혜능 선사의 남종 돈오선을 신라에 처음 전법한 도량이자 차의 발상지이며, 해동 범패의 연원이다. 선(禪)과 차(茶), 음(音)의 성지인 쌍계사가 지난해 총림으로 신규 지정된 것은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총림으로서 면모를 달리하고 있는 쌍계사에는 오랜 선원이 있다. 바로 금당선원이다. 722년(신라 성덕왕 21)에 대비, 삼법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육조 혜능의 정상(頂相)을 가져와 모신 자리에 세워졌다. '육조정상 해동 봉안설' 의 근원지가 쌍계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웅전 오른쪽으로 돌아 옥천교라는 다리를 건너면 곧 금당선원의 권역에 이른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오르면 곧 금당을 만날 수 있다.

'금당(金堂)' 이라는 편액을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가 쓴 '세계일화 조종육엽(世界一花 祖宗六葉)' 이란 편액이 함께 걸려있다. 편액만으로도 금당선원이 가진 정진의 무게가 남다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당을 좌우로 동방장(東方丈)과 서방장(西方丈)으로 나뉘어 있는 선원에서는 이번 안거 한철 17명의 스님들이 은산철벽을 부수기 위한 정진을 거듭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도 틈틈이 수좌들과 함께 정진하며 이들을 독려했다.

고산 스님은 안거 기간동안 수좌들에게 주문한 것은 계 · 정 · 혜 삼학을 기본으로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산 스님은 2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행이 청정하고 선정을 가지면 지혜가 나오는 것"이라며 "계 · 정 · 혜 삼학은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근본 도리"라고 강조했다.

동 · 서방장 나뉜 선원서
17명 수좌들 용맹정진

방장 고산 스님 손수 지도
'쉼 없이 정진' 이 고산 가풍
"계 · 정 · 혜 기본으로 정진"

쌍계사를 지금의 사격으로 올려놓은 것은 모두 고산 스님의 원력이다. 금당 선원의 동 · 서방장을 복원한 것도 고산 스님이다. 그만큼 선원의 가풍도 스님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고산 스님의 수행가풍은 어떤 것일까. 스님은 '불식촌음(不息寸陰)' 이라고 단박에 답했다.

쌍계사 금당선원에 방부를 든 수좌들이 산문을 나서고 있다.

2월 13일 해제를 하루 앞두고 방장 고산 스님과 대중들이 마지막 정진을 하고 있다.

"촌음이 무엇이냐. 잠깐의 시간을 말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고산 가풍' 입니다. 수좌도 기도하는 사람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됩니다. 한철 깨달음을 위해서는 정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고산 가풍' 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방장이다. 서방장은 24시간 용맹정진을 하는 곳이다. 이번 안거에도 한 명의 수좌가 석달 열흘을 장좌불와(長坐不臥) 정진을 했다. 반면 동방장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방장과 서방장의 인원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고산 스님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동결제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운수납자들에 대한 고산 스님의 당부도 한결 같다. 계 · 정 · 혜 삼학을 기본으로 방심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다.

"산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당부할 것은 없어요. 석달 동안 공부하고 난 뒤 들은 의문을 전국의 선지식에게 물어보십시오. 선지식들이 알아서 그 길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은 계 · 정 · 혜 삼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파에 휩쓸리지 말고 계 · 정 · 혜 삼학을 기본으로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일까. 금당선원에 방부를 들었던 수좌들의 표정은 한결같다. 해제 이후 계획을 물어보니 "선지식을 찾아가겠다", "달라질 것 없이 정진하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내 걸망을 짊어 맨 수좌들이 다시 만행(萬行)에 오르기 위해 금당에 모셔진 '육조정상탑' 에 참배를 올렸다. 육조 혜능 스님의 오도송이 적힌 금당의 주련이 만행에 오르는 수좌들에게 또 다른 해제 법문으로 다가온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요/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라네/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나랴.(菩提本無樹 明鏡亦非帶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하동 쌍계사=신중일 기자

남북통일 위해 불교NGO 손잡다

통일불교기획단 창립총회
남북철도 연결 사업 매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불교계 모임이 출범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인권위원회, 정희평화불교연대 등 불교단체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하 불교실천기획단)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불교실천기획단은 상임단장에 진관 스님, 공동단장으로 법응 스님, 이수덕(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 조영건(경남대 명예교수)씨를 선임했다.

진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절박한 것은 평화"라며 "불교도가 나서 분단 조국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는 서원을 세워 평화 염원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해 종단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불교실천기획단이 경색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창립을 축하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실천기획단은 향후 통일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륙재를 봉행한다. 또한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계획중이다.

불교실천기획단 자문위원으로는 우송(신흥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범각(대흥사 주지), 종훈(총무부장), 원명(호법부장), 보화(사회부장), 지원(문수사 주지) 스님이 위촉됐으며 기획의원으로는 웅산(화암사 주지), 혜만(자제암 주지), 마가(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스님과 이원영 수원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진철문 동국대 교수가 동참했다.

한편 창립식에 이어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법응 스님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과 과제' 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템플스테이 이젠 교양 과목으로 수강

불교문화사업단 · 동국대, 2월 10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에서도 템플스테이를 교양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은 2월 10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으로 양 기관은 불교문화사업을 통한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불교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계획이다.

특히 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학교는 불교문화 관련 강의 및 프로그램 개발, 재학생과 외국인 학생 대상 전통불교문화 강좌 개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약속했으며, 동국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템플스테이 관련 교양강좌를 정규편성해 현장실습과 이론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후대에 전하는 일선에 있는 만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불교문화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월 10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 을 체결했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에 한국불교문화를 전하는 총아로써,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의 역량이 결집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교육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